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흥행 예고

전주시 열리는 개막전 등 총 7경기 30% 할인 관람 전주패키지 티켓, 한정수량 2017매 매진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최도시인 전주시에 배정된 패키지 티켓이 전량 판매되면서 대회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시는 U-20월드컵 기간 동안 전주에서 열리는 개막전 등 총 7경기를 한 장의 티켓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인 전주패키지 티켓 한정수량 2017매가 지난달 30일부로 매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U-20월드컵 개별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일반 티켓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2일부터 판매된 일반티켓은 개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으로, 조별예선의 경우 더불어 2경기를 1장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주는 조별예선과 16강전, 8강전, 4강전 등 총 6종의 티켓을 판매한다.

가격은 조별예선 1만원~2만원, 대한민국 예선과 16강 경기는 1만5000원~3만원, 8강전은 1만8000원~3만5000원, 4강전은 2만원~4만원 등 경기와 좌석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만 4세부터 15세까지 적용되는 유소년 티켓의 경우도 7000원~1만8000원으로 가격대가 다양하다.

다양한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장애인(1~3급)과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11명 이상의 단체 구매 고객은 30%, 4인 이상~10인 이하의 단체 구매고객에게



전주시는 U-20월드컵 기간 동안 전주에서 열리는 개막전 등 총 7경기를 한 장의 티켓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인 전주패키지 티켓 한정수량 2017매가 지난달 30일부로 매진됐다고 3일 밝혔다.

는 15%의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오는 14일까지는 FIFA 파트너사인 VISA 카드 이용자들을 위해 VISA 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며, 조 추첨이 열리는 오는 3월 15일(한국 시간 기준)까지 VISA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의 얼리버드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VISA 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 구매는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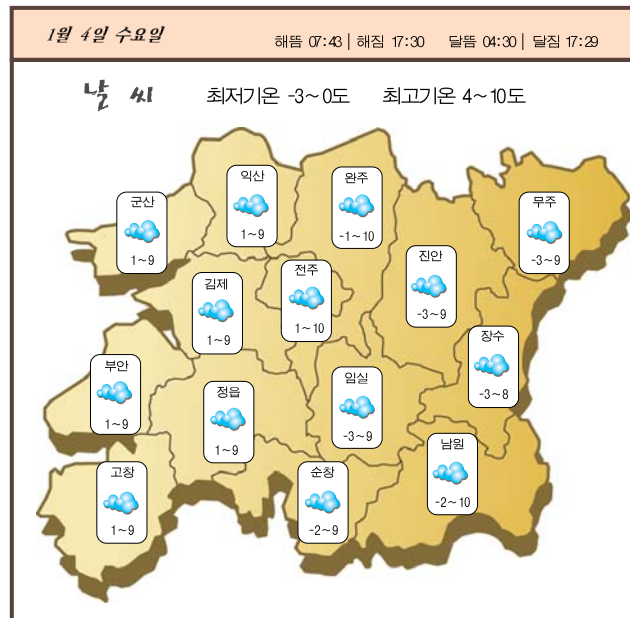
월드컵 티켓은 대회공식 인터넷 티켓 구매 사이트 (<http://kr.fifa.com/u20ticket>)와 콜센터(1544-1555)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대회기간 중에는 현장 판매도 진행된다.

장봉근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장은 "전주패키지에 보여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 개막전과 한국팀

조별예선 2경기, 16강전과 8강전, 4강전까지 많은 빅게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일반 티켓에도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http://kr.fifa.com/u20ticket>)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063-281-6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북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 지역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만 16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며 전형 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고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제한은 없으며 다만 정원 초과시 전북지역을 우선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토, 일 제외)이며 전라중학교 1층 교무실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와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사진, 주민등록초본 1부 등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3-252-275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원서 제출 기간은 1월 5일부터 3월 31일 형이고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서 접수는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토, 일 제외)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063-710-5561 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3차년도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디딤·이음·희망 단계로 나눠 주민제안 사업으로 공모... 각각 선정·지원

전주시가 주민간 교류 활성화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도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는 3차년도 온두레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작단계인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키우는 이음단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로 나눠 주민제안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전주형 공동체 사업으로, 전주의 옛이름인 온고을의 '온'과 우리 고유의 공동체 문화인 '두레'를 합한 이름이다.

우선, 시작단계인 디딤단계는 동일지역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거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와 거주자에 상관없이 전주시민 5명 이상이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꿈을 이뤄가는 '청업공동체'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또한 시는 지난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이 있

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이음단계로, 디딤 및 이음단계에 참여한 공동체 중 사업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동체를 희망단계로 각각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선정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의 사전 검토를 거쳐 차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단계별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시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온두레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공동체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

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예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모임,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사회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sec@jsec.or.kr)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공동체육성과 전화번호(281-2498,50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온두레 공동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29개의 공동체를 육성했다.

/김영재기자

올해 3월 전주 하가초 등 3개교 개교

올해 3월 1일자로 전주 하가개발지구 하가초등학교, 전주 효지6지구 개발지구에 전주새연초등학교가 각각 개교한다.

또 익산 배산개발지구 유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익산가온초등학교도 개교하는 등 총 3개 학교가 올해 3월 개교한다.

유치원도 같은 시기에 새롭게 개교한다. 전주시립유치원, 전주하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익산가온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학생수가 없어 학교 운영이 불가능했던 군산 해상초등학교 내초분교가 2월 28일자로 폐교된다.

또한 3월 1일자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김제자영고등학교가 농생명식품분야 인력 양성의 의미를 담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이 변경된다.

/정해은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